

## 〈九雲樓〉와 〈九雲記〉의 거리\*

양승민\*\*

— <차 례> —

1. 새로운 과제
2. 수정 교감한 글자의 계승
3. 〈九雲記〉에 나타난 添刪의 실상
4. 〈九雲記〉의 문헌적 성격
5. 맺음말

### 〈국문초록〉

최근 필자는 국내에서 〈新增九雲樓〉 10책본 중 殘存 6권6책 필사본을 발견, 그에 대한 선행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논문은 그 후속 연구로 〈구운루〉와 〈구운기〉를 면밀히 대조하여 그 상호관계 및 〈구운기〉의 이본적 성격을 고찰한 글이다.

먼저 조선교감필사본 〈구운루〉에서 수정된 글자가 〈구운기〉로 어떻게 계승되었는가를 살펴본 결과, 〈구운기〉는 조선필사본 〈구운루〉를 직계승하는 가운데 또다시 약간의 개수를 가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다음, 〈구운기〉에 나타난 ‘添刪’의 실상을 ‘異, 添, 刪’ 세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 고찰한 결과, 순전히 ‘添’만 하거나 ‘刪’만 한 글자보다는 다른 표현으로 고친 경우[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런가 하면 〈구운기〉는 어색하거나 불필요한 첨삭, 수정 오류 등 도처에 문제를 안고 있는 이본이며, ‘문장단위’의 무작위 산삭이 가해진 곳도 다수 나타난다. 이는 전적으로 〈구운기〉 성립 과정에서 달라진 것으로, 중국본 원작과는 별개이다. 〈구운기〉는 조선필사본 〈구운루〉를 직계승하면서도 적잖은 改修가 가해짐으로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005-J01901).

\*\* 선문대학교 연구교수

써, 결과적으로 원작인 중국 刊本과의 거리가 더욱 멀어진 이본이다. 나아가 영남 대본 <구운기>는 일반적인 전사본이 아니라 편자의 원고본이라는 사실도 아울러 밝혔다.

주제어 新增九雲樓, 九雲記, 교감본, 添刪, 改修, 원고본, 無名子.

## 1. 새로운 과제

<九雲樓>는 김만중의 <구운몽>을 청대 중국인이 대폭 늘려 개찬한 35회 장편 백화소설이다. 여항시인 金進洙(1797~1865)의 연행시집 『燕京雜詠』(1832)에 전하는 시와 주석을 통해 <구운루> 10책본의 존재가 알려졌지만, 그동안 실물이 나타나지 않아 그 실체를 알 수 없었다. 그런가 하면 이미 70년대에 영남대 소장 9책본 <九雲記>가 발굴 소개되었으나, “九雲樓”라는 제명과 다르고 권책 수도 일치하지 않아 그 정체는 물론이고 국적문제 등을 둘러싸고 국내외 학계에서 첨예한 논쟁들이 있어 왔다.<sup>1)</sup> 게다가 <구운기>는 근대중국어로 지어진 백화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는 전하는 것이 없고 한국에, 그것도 “無名子 添刪”이라고 적힌 ‘조선필사본’ 형태로 남아 있어 문제가 더욱 풀리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필자는 최근 필사본 6권6책 殘本으로 전하는 인천시립도서관 소장 <新增九雲樓> 10책본을 발굴해 학계에 소개한 바 있다.<sup>2)</sup> 이로써 그동

1) 국내외 연구사 검토 결과,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① <구운기>는 『연경잡영』에 언급된 <구운루>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같은 작품인가 별개인가? ② <구운기>는 한국소설인가 아니면 중국소설인가? ③ 김진수가 燕行 당시본 <구운루>(10책)는 刊本인가 아니면 필사본인가? // 그동안 보고된 선행연구는 참고문헌에 정리한 바와 같다.

2) 양승민, 「<新增九雲樓>의 발견과 그 존재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48, 한국한문학회, 2011. // 이 필사본 <구운루>는 권수제가 “신증구운루”이고 표제는 “구운루”이다.

안 논란거리였던 “九雲樓 十冊”의 실체는 물론이고 국적문제 등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이 거의 다 해결될 수 있었다. 필자의 선행연구에서 거둔 가장 중요한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 전하는 <구운루>는 ‘중국 刻本’을 저본으로 그대로 模寫하듯 필사한 책이다. 그러나 단지 모든 글자를 똑같이 옮기는 데 주력한 전사본이 아니라, 조선에서 번각본을 인출하기 위해 작업한 일종의 교감본이다. 그리고 이 현전 필사본은 당시 교열자가 직접 남긴 原稿本이다.

둘째, 이 필사본이 지닌 여러 서지적 특징과 공식들은, 중국에서 <구운루> 목판본이 간행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저본인 중국판본의 影寫本에 가까우므로, 그 존재 자체로 일실된 刊本이 나타난 것에 준하는 자료적 위상을 지닌다. 중국 刻本은 현재 未見이므로, 이 필사본 <구운루>는 그 원작을 대신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귀중본 자료이다.

셋째, 영남대 소장 <구운기>는 중국 刻本을 저본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 조선교감필사본 <구운루>를 직계승하는 가운데 또다시 도처에 添刪을 가한 일종의 2차 개수본이다. 필사본 <구운루>는 중국 刊本을 저본으로 1차 수정교열을 가한 이본이고, 다시 <구운기>에서 필사본 <구운루>를 저본으로 2차 개수가 이루어졌다.

넷째, 국적을 꼭 따지자면 <구운루>는 중국인이 漢語로 개찬한 중국 소설이다. 국내 소장 필사본 <구운루>와 <구운기>는 중국본 원작에서 약간 달라진 두 이본이다.

필자의 선행 연구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이상과 같다. 결국 중국인이 지은 <구운루>는 다음과 같은 異本들이 순서대로 나온 것으로 정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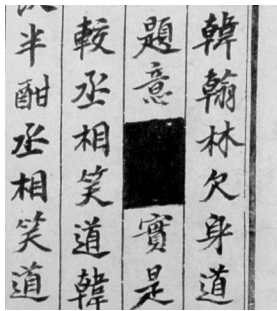
---

네 책이 빠진 6권6책 殘本으로, 현 傳本의 소장권책은 제2책(권2)과 제6~10책이다. 476회, 19735회를 수록하고 있다.

- Ⓐ 중국 刻本 <신증구운루>, 10권10책: 未見
- Ⓑ 조선교감필사본 <신증구운루>, 10권10책: 인천시립도서관 소장
- Ⓒ 조선添刪本 <新增才子九雲記>, 9권9책: 영남대 소장

이제 <구운루> 기초연구에 있어 남은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구운루> 원작인 중국 刊本(목판본)이 조선교감본(필사본)에 와서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실제 자료에 의거해 더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교감본과 이를 직계승한 영남대본 <구운기>(添刪本)의 실제적 거리를 종합적으로 드러내는 일이다. 전자는 중국 간본이 未見이므로 자료적 한계가 있고, 보다 안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과제는 후자이다. 이 자리에서 이를 새로운 후속 연구로 진행하고자 한다.

## 2. 수정 교감한 글자의 계승



조선교감필사본 <구운루>에는 좌측 사  
진과 같이 먹으로 정교하게 정방형 모양의  
칠을 해둔 곳이 총 8군데 나타난다. 이는 中  
國刻本 저본에 있던 어떤 글자를 삭제하는  
가운데, 해당 글자가 들어갈 그 자리를 그냥  
■으로 비워둔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상태  
로 문리가 잘 통하기 때문에 ■이 있는 자리

에 다른 글자를 보충할 필요가 없다. 저본에 간혹 불필요한 글자가 들어  
가 있자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지운 것임을 말해준다. 8군데 중 권2(제6회)  
에 들어 있는 하나를 논외로 하면,<sup>3)</sup> 7군데가 고찰 대상이다. 바로 이곳을

<구운기>와 대조해 보자.

<1>

丞相■心中, 只是歡喜, 一面引人出來, 轉過山坡, 穿花度柳, 撫石依泉, 過了茶麤架, 入木香棚, 越牡丹亭, 度芍藥圃, 到薔薇院, 傍芭蕉塢裏的盤旋曲折. (<구운루>, 25회 10면 6행)

丞相心中, 只是歡喜, 一面引人出來, 轉過山坡, 穿花度柳, 撫石依泉, 過了茶麤架, 入木香棚, 越牡丹亭, 度芍藥圃, 到薔薇院, 傍芭蕉塢裏的盤旋曲折. (<구운기>, 25회)

<2>

又有五城兵馬司打掃街道, 攆逐閑人, 俱是停妥. 眞個是帳舞蟠■龍, 簾飛繡鳳, 金銀煥彩, 珠寶生輝, 鼎焚百合之香, 瓶插長春之藥. (<구운루>, 25회 24면 9행)

又有五城兵馬司打掃街道, 攆逐閑人, 俱是停妥. 眞個是帳舞蟠龍, 簾飛繡鳳, 金銀煥彩, 珠寶生輝, 鼎焚百合之香, 瓶插長春之藥. (<구운기>, 25회)

<3>

是故古之賢君, 必詔舉賢■良方正之士, 臣之良弼, 必犯言無諱, 上以補袞闕, 下以正時政, 自相備陳, 以盡臣分. (<구운루>, 26회 17면 1행)

是故古之賢君, 必詔舉賢良方正之士, 臣之良弼, 必犯言無諱, 上以補袞闕, 下以正時政, 自相備陳, 以陳臣分. (<구운기>, 26회)

<4>

韓翰林欠身道: “「訪菊」, 畫菊」二詩, 閑寂淋漓, 兩盡題意, ■■實是

3) 권2(제2책) 한 권은 (당초의 정서본이 분실되자) 그 빠진 권책을 맞추느라 중국 刊本을 저본으로 다시 필사해서 補冊한 것이다. 종이와 책 크기는 같으나, 필체가 완전히 다르고 수정 교감을 완료하지 못한 일종의 未定本이다.

丞相正音宗匠. 晩生等何敢相較?” (<구운루>, 29회 21면 2행)

韓翰林欠身道：“「訪菊」, 畫菊」二詩, 閑寂淋漓, 兩盡題意, 實是丞相正音宗匠. 晩生等何敢相較?” (<구운기>, 29회)

<5>

魏公定睛看時, 也有錦袍玉帶的, 也有袞冕牙笏, ■王者威儀的, 也有阜衣雲履的, 也有葛巾野服、氣宇飄爽的. (<구운루>, 30회 8면 5행)

魏公定睛看時, 也有錦袍玉帶的, 也有袞冕牙笏, (似)王者威儀的, 也有阜衣雲履的, 也有葛巾野服、氣宇飄爽的. (<구운기>, 30회)

<6>

英陽接來看時, 便是細綉芝蘭諸草, 文彩燦爛, ■間架精密, 十分可愛. (<구운루>, 30회 20면 6행)

英陽接來看時, 便是細綉芝蘭諸草, 文彩燦爛, 間架精密, 十分可愛. (<구운기>, 30회)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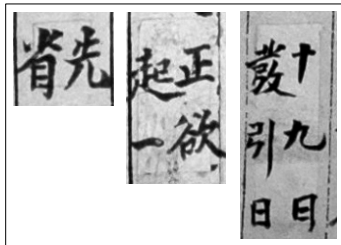
自此八位新婦, 諸子諸女, 昕夕定省, 日三請安. ■留守、郡夫人含飴之樂, 魏王、公主、夫人撫愛之情, 團圓福祿, 比古郭汾陽有倍加焉. (<구운루>, 33회 14면 8행)

自此八位新婦, 諸子諸女, 昕夕定省, 日三請安(於)留守、郡夫人含飴之樂, 魏王、公主、夫人撫愛之情, 團圓福祿, 比古郭汾陽有倍加焉. (<구운기>, 33회)

상기 7군데 중 5군데가 <구운기>와 완전히 똑같다. 글자를 ■ 모양으로 지워 놓은 필사본 <구운루>의 그것들이 두 군데만 제외하고는 <구운기>로 그대로 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5번>과 <7번> 두 곳의 경우 <구운

기>에는 각각 ‘似’자와 ‘於’자가 들어가 있다. 이는 필사본 <구운루>를 계승하는 가운데 <구운기> 편자가 다시 첨기한 글자로 보인다. 이 두 곳만 그대로 계승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문장을 살펴보면 첨기한 흔적 또한 역력하다. <5>번에 첨기된 ‘似’자의 경우 불필요한 글자로, 이를 추가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문장이 된다. <7>번에 첨기된 ‘於’자는, ‘日三請安’에서 일단 끊거나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문장이므로 추기해서는 안 되는 글자이다. <구운기> 편자는 「日三請安於留守郡夫人舍館之樂」이라고 읽은 것인데, 이는 오독이다. ‘留守郡夫人舍館之樂’은 뒤로 통하는 문구이다. ‘於’자는 단지 불필요한 글자가 아니라 첨기해서는 안 되는 글자인 것이다. 결국, 영남대본 <구운기>는 조선교감본 <구운루>를 계승하는 가운데 또다시 약간의 개수를 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 필사본 <구운루>에는 좌측 사진과 같이 小字雙行으로 수정 기입한 곳들이 많다. 일단 저본 그대로 필사한 다음 원래의 어떤 글자를 올려내고서 종이를 裏面에 덧댄 다음 수정한 것으로, 행을 이탈하지 않고



반드시 그 행 내에 맞추어 쓰기 위해 소자쌍행으로 기입해 놓았다. 검토 결과, 저본에 있던 원래의 글자를 다른 글자로 고치기도 하고 새로운 글자를 添記하기도 했다. <구운루> 필사자가 중국 刻本 그대로 두지 않고 ‘교감’ 또는 ‘改修’를 가했음을 뜻하는 것으로, 현전 권책에서만도 총 120 군데가 확인된다.<sup>4)</sup>

4) 19회: 4곳, 20회: 6곳, 21회: 12곳, 22회: 3곳, 23회: 13곳, 24회: 4곳, 25회: 4곳, 26회: 7곳, 27회: 5곳, 28회: 4곳, 29회: 3곳, 30회: 11곳, 31회: 11곳, 32회: 6곳, 33회: 14곳, 34회: 9곳, 35회: 4곳.

영남대본 <구운기>에는 이들 수정된 상태가 거의 그대로 계승되었다. 120군데 중 똑같이 계승되지 않고 <구운기>에서 다시 약간 고쳐진 곳은 다음 여섯 군데에 그친다.

<1>

鄭府知了本菴佛像年久頽金, 眞人小照有多剝落之由… (<구운루>, 20회 8면 10행)

鄭府知了本菴佛像年久頽金, 眞人小照多有剝落之由… (<구운기>, 20회)

<2>

春娘笑道: “臣妾異於發蹤, 其過不大, 只從兩貴主娘娘之教罷了.” (<구운루>, 22회 9면 4행)

春娘笑道: “臣妾異於發蹤, 其過不大, 只從兩貴主娘娘之教罷了.” (<구운기>, 22회)

<3>

漱口, 淨了手, 茶畢, 各自散坐, 復各自相攜, 遊玩一會子. (<구운루>, 25회 26면 9행)

漱口, 淨手, 茶畢, 各自散坐, 復各自相攜, 遊玩一會子. (<구운기>, 25회)

<4>

走不多遠, 總是金窓玉檻, … 鼎飄麝腦之香, 屏列雉尾之扇. (<구운루>, 26회 10면 4행)

走不多遠, 總是金窓玉檻, … 鼎飄麝腦香, 屏列雉尾之扇. (<구운기>, 26회)

<5>

且說, 刑部尙書胡伯遠, 承了詔旨還家, 心內想道: “…” (<구운루>, 26회 23면 5행)

且說, 刑部尙書胡伯遠, 承詔旨還家, 心內想道: “…” (<구운기>, 26회)

<6>

胡刑部大喝一聲, 假意拍案叫道: “… 也是你你自看見的…” (<구운루>, 27회 16면 9행)

胡刑部大喝一聲, 假意拍案叫道: “… 也是你且見的…” (<구운기>, 27회)

120군데 중 114곳이 <구운기>로 똑같이 계승되었기 때문에 차라리 약간 달라진 경우를 살펴본 것이다. 위 예문에서 보듯, 다시 <구운기>에서 아주 약간씩의 수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조사 및 허사를 삭제하거나 다른 통용자로 바꾼다거나 문언문식으로 고치기도 했음을 직감할 수 있는데, 사실 <구운기>에 나타난 전반적인 改修 경향이 이렇하다. 그런 가운데 필사본 <구운루>에 나타난 오류가 수정되기도 하였다. 가령 <6>번을 보면, <구운루> 교감자는 小字雙行으로 ‘你自看見’이라고 수정 기입하면서 실수로 ‘你’자를 중복해서 적는 오류를 남겼다. <구운기>에서는 다시 ‘你目見’으로 바뀌면서 ‘你’자 하나가 삭제되어 오류가 바로 잡혔다. 이로써 영남대본 <구운기>는 중국 刊本이 아닌 조선교감필사본 <구운루>를 계승하는 가운데 또다시 개수된 이본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필사본 <구운루>를 살펴보면 위와 같이 소자쌍행으로 수정 기입한 것들 말고, 단지 어떤 글자를 올려내고서 그 자리에 같은 크기의 글자로 수정한 경우는 훨씬 더 많다. 다시 말해 어떤 ‘한 글자’를 올려

내고 종이를 덧대어 다시 그 자리에 ‘한 글자’를 적은 그런 수정 사례 말이다.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으나 거의 매 면에서 몇 글자씩 나타나므로 줄잡아 1,000글자도 넘는다고 보면 된다. 여러 글자를 한꺼번에 오려내고 수정한 곳도 여럿 있으며 한 행을 통째로 오려내고서 다시 쓴 곳도 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

及見鄭小姐, 愛眷之心, 不但由中而出, 越峭越甚, 看其舉止儀容, 敬謹之意愈重也, 將一腔不賢之心, 已攢到東洋大海去了. (<구운루>, 21회 9면 2~3행)

위 예문 중 밑줄 친 21글자는 오려낸 자리에 종이를 덧대고서 다시 쓴 부분이다. 중국각본과 대조해 보기 전에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그와 같이 오려내고 다시 쓴 글자들 중 상당수는 원 저본과 달리 수정되었을 가능성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필사본 <구운루>는 그토록 정서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종이를 오려내고 수정한 곳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물론 단지 오자를 수정한 것들도 섞여 있겠지만 그 중 상당수는 아예 다른 글자로 바뀐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한 수정 흔적이 너무 많다 함은 단지 오자를 수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글자로 바꾸기도 했음을 뜻한다. 그런데 이때, 이들 오려내고서 일대일로 수정한 글자들도 <구운기>로 거의 다 그대로 계승되었다는 것이다. 간혹 달라진 곳이 나타나지만 그것은 <구운기>에 와서 다시 수정된 글자임이 자명하다. 이 또한 <구운기>가 다른 아닌 조선필사본 <구운루>를 계승한 이본임을 말해준다.

### 3. <九雲記>에 나타난 添刪의 실상

주지하듯 영남대본 <구운기>를 보면 그 매 권책 첫 면에 “無名子 添刪”이라고 적혀 있다. 무명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 ‘添刪本’이라고 했다. 이제 그 저본인 <구운루>가 발견되었으므로 그 ‘첨산’의 실상이 어떠한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설왕설래가 많았던 <구운기>의 정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이 연구는 가급적 많은 예를 들어서 살펴보는 것이 상책이겠으나, <구운루>는 장편소설이므로 일부 권책 및 회차를 선별적으로 택하는 가운데 그들 각 회에 나타난 거의 모든 사례를 정리해 보는 방법을 취하기로 하겠다.<sup>5)</sup> 이렇게 하면 전반적인 통계를 미루어 가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에 권2, 권6, 권9, 권10 네 책 중에서 각각 한 회씩 4회, 19회, 29회, 33회를 선택하였다. 각 예문은 <구운루>와 <구운기>를 나란히 들지 않고, <구운루>를 기준 문장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구운기>에 와서 달라진 글자들을 부호로써 구분하기로 한다. < > 속에 묶은 글자는 <구운기>에서 다른 글자로 바뀐 경우로 이를 ‘異’라고 부르기로 한다. ( ) 속에 묶은 글자는 <구운기>에 와서 ‘添加’된 글자이며, [ ] 속에 묶은 것은 ‘刪削’된 글자이다. 이하 異, 添, 刪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異

- 纔道 : “夫人倒<到\*>也助孩兒之旗鼓了…” (4회)
- 少游應對道 : “男兒(志)要的, … 但爺娘<孃>在上, …” (4회)
- 丫鬟們將晚飯擺<罷\*>在小卓兒上, 大家用過. (4회)
- 這是山僻小縣<路>治. (4회)

5) 글자는 서로 다르지만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는 약간 수의 사례는 제외했음을 밝히둔다.

- 兩邊蹲着<看\*>兩對石獅子. (4회)
- 中間露出一帶粉牆, … 掩映<暎>於垂柳之中, 極其華麗. (4회)
- 粉牆角下, 有一垂花門, 朱扉<扇>緊閉, 不見人影. (4회)
- 樓上綉戶半掩, 樓前便是削砌室<窪>庭, 飛塵不到. (4회)
- 傍邊又有一大盤陀白石, 釘磨<磨\*>造成的. (4회)
- 盤石明潤滑<華>麗, 上可坐十數人. (4회)
- 嬋娜未堪持<特\*>贈別, 參差已是好相思. (4회)
- 寫畢, 復浪<朗>吟一番. (4회)
- 杏臉光含玉, 春山眉黛<戴\*>青. (4회/詩)
- 秋波留淑意, 隔簾環珮<佩>聲. (4회/詩)
- 皎皎<皎皎\*>龐貌俊俏, 宛然玉樹臨風. (4회/詩)
- 少游大爲詫異<說異\*>. … 又驚又喜, 勝似模地裏拾取珍寶一般. (4회)
- 仰面看<仰>時, 樓窓已閉, 香息杳然, 少游悵然佇立, 躊躇<躊躇>了半餉, 又無要問來歷之人, 中心怏怏, 只在那裡出神. (4회)
- 小二應[對]道: “這是秦御史宅子. … 同奶娘<仍娘\*>、幾箇老媽、丫鬟、僕夫們、管家在的. ….” (4회)
- 公子悄然獨坐, … 口中只自發言道: “倘得此有貌有才之女, 作爲佳偶<耦>, 足遂平生之志. ….” (4회)
- 再將花箋就了燈下看了又看, … 墨迹<跡>淋漓, 龍飛鳳舞. (4회)
- 少游愛玩不已, 一邊敬慕一邊悵悵, 不忍釋手, (而)如癡如狂<枉>, 以心問心, 把捉不定, 那裡睡得着. (4회)
- 稱道<你道>這是何故? 原來萬曆年間, 礦採繁<煩>興, 徵稅征權重急, 萬民嗷嗷. … 時升<昇>平日久, 民不知兵, 自相雜還, 紛駟載路. (4회)
- 流水潺湲<湲>, 澗內聲聲鳴玉珂, 飛泉瀑布, 洞中隱隱奏瑤琴. (4회)
- 楊公子看來, 不覺有趣. 見他線<緣\*>路傍通, … 有一樵夫在石崖上<下>刈草. (4회)
- 樵夫見公子美貌秀麗, 便答禮, 笑容可掬道: “… 山下村居, 恰<恰\*>爲二十多里. ….” (4회)

- 便別了樵夫, 向東抹角, 果是小石橋, 就度<到>了橋, 過了松陰, 直到羅真人觀前. (4回)
- 野鹿御花穿徑去, 山猿擎<擎>果度岩來. (4回)
- 又看那一清先生時, 長髯蒼<青>頰, 碧眼方瞳. (4回)
- 此時<此是\*>, 羅<那\*>真人問公孫一清道: … (4回)
- 公子另饑了一夜半天, … 漱<嗽>茶, 此與別的膳食有異, … 有似醍醐灌頂. (4回)
- 公子在松鶴軒套間小屋子, … 有時與道童遊玩<翫>二仙山時景. (4回)
- 少游恭敬伏侍, 向前告道: “弟子自從遇亂上山, 蒙<家\*>仙師收育, 塵世之念已厭冷了…” (4回)
- 真人笑道: “這便是不是了. … 富貴自來逼人, 非人人可求得之<的>. … 榮親耀族<宗>, 非同少可…” (4回)
- 真人道: “婚姻之事, 自有月老<月姥>之係繩. 你是封妻蔭子, 萬里封侯, 自然是三妻五妾, 各有一人之因緣<各有各人姻緣>, 自可成就…” (4回)
- 少游對道: “樂者, 六藝[之]中次<吹\*>於禮者. 學者有非疏忽(而)有師受, 然後可以傳其妙處…” (4回)
- 少游素是聰明透徹的才, 聞一趣, 解十音. 不上<止>幾日, 已盡得其微奧. 復將『陰符經』日日講誦<頌\*>, 多受合關奇變之旨, 亦復精通. (4回)
- 真人道: “兵燹已息, 道途纔平. 你且下山歸家, … 無貽孝廉倚廬<閭>之望.” (4回)
- 少游盡宵南望, … 告辭羅真人道: “… 厚蒙師父愛育之情<恩>, 多承教誨, 雖欲長侍丈席之下, 乃<奈>父母遠在, 亂難相阻, 死生<生死>相昧, 既知道路之通, 不堪久住, 就此告歸…” (4回)
- 於是少游深深四叩起來, … 當晚携了古琴<告琴\*>、玉簫, 帶了楊福, 一同下山, 取路(回)向咸寧去了. (4回)
- 忽一日道途傳說, 礦民繁苦, 與金人<全人\*>相通, 相率爲盜, 打家劫

- 舍, 殺人放火, 官軍<官庫\*>不得禁止. (4회)
- 華陰諸縣, 兵燹塞路<寒路\*>, 行旅波蕩. (4회)
  - “孩兒如已到京, 萬事都休. 若復尙在道中<途中>, 如之奈何?” (4회)
  - 孝廉如此思量, 猶此<且>放心不得. (4회)
  - 雖然如是爲說, 懷着鬼胎<胎>, 安危未定. (4회)
  - 又過了一個月餘, … 會圍退以明春<明年>. (4회)
  - 華陰少縣<數縣>, 亂兵橫據, 行旅莫通. (4회)
  - “… 內中有肉骨<骨肉>一塊, 骨插牙齒, 牙中血來, 將骨肉濾血, … 是以納悶不妥了.” (4회)
  - “兵革之慘, 果如是耶? 無奈<乃>秦小姐被刦不從, 遂見了全家屠戮麼?” (4회)
  - 內中一人, 斯文打扮, 眉目清明, 氣宇<字\*>軒昂, 年可二十餘… (4회)
  - 那人叫過酒保, 道: “快湯了兩角酒, 揀好看<餚>饈來, 以供尊客些罷.” 酒保諾諾連聲去了. 沒多時, 湯<燙>酒上來, 先放開<方開\*>條桌子, 舖<鋪>下菜蔬果品<菓品>, 羊肉熟鵝, 一般案酒之物<類>. (4회)
  - 狄弼琦道: “尊兄有所不知. … 春間礦民和遼兵合勢, 一省騷擾<搔擾>, 久據華陰之界…” (4회)
  - 弼琦<弼琦\*>道: “在下與秦御史年伯世交, 未知尊兄亦與世契<交>麼?” (4회)
  - 少游道: “蒙兄長錯愛<借愛>, 晚弟豈敢有隱.” (4회)
  - “秦家小姐原來名彩鳳, 以才容擅於一府, 今爲可憐. 自古道‘紅顏薄命’, 是卽<爺\*>又一場.” (4회)
  - 相與歎惜, 仍開懷暢飲, 極其懇懇<懇勤>, 少游不勝感謝. (4회)
  - 夫人尤用嗟惜, 道: “秦家女<奉家女\*>雖有才貌, 天緣旣無, 生死難保, 何須掛念…” (4회)
  - 復先到山前峪<谷>口, 審見前路, 驅兵突出. (19회)
  - 倭營將士, 但聞<聽>歐道士之言, 知有盤蛇谷前後之路, 緊緊填塞把守, 不知有柏樹谷口, 通於盤蛇谷. (19회)

- 明陣衆軍一齊追趕, 那阜甲軍未及鍊習<未習練習>, … 只亂紛紛東西奔竄. (19회)
- 元帥亦不追趕, … 到山坡下平原廣野的處, … 三軍解甲暫<替\*>歇. (19회)
- 越發憂懼, 親自上城看來, 明軍黑壓[壓], 圍了三匝, 鐵桶<鐵筒>相似. (19회)
- 元帥聽是, 卽命退兵十餘里, 屯扎<屯札\*>大軍, … 巡城外接應了. (19회)
- 腰繫雙環龍角黃鞵帶<鞋帶\*>, … 騎一匹鐵脚棗驢馬. (19회)
- 元帥聽的平秀突要鬪陣法, 便答應道: “軍行營寨, 我自樹<守>陣, 本非欲爲瞞人者. (19회)
- 我明朝小兒們俱爲知此陣法, 你今誇<誘>甚麼冒弄些兒?” (19회)
- 卽便<變>更入陣中, 下馬上臺, 復將號旗左右盤旋, 變成個陣勢. (19회)
- 平秀突聽了元帥不卽說來陣號<陣勢>, … 便冷笑道: “你有不知了這陣時, 輸俺一陣罷.” (19회)
- 平秀突大笑道: “… 你軍中<陣中>休放冷箭, 看俺打你小陣粉碎罷.” (19회)
- 元帥已傳下令, 教軍中整搦三通戰鼓, 無放短箭<冷箭>. (19회)
- 且說, 洛正、吉乎飛各引三千兵, … 却不想不見些<時\*>動靜, … 又不敢殺過來. (19회)
- 吉乎飛見[了]兩將酣戰, 不分勝負<勝敗>, 又挺鎗<槍>出馬, 飛遶殺來. (19회)
- 洛正(외장 이름)見了吉乎飛輸<輸\*>了直走, 又自賣下破綻, 引軍回陣, 陣兵已自散亂, 無奈奪路自走. (19회)
- 吉乎飛道: “副總兵之言狠<狠\*>是. … 今宜<可>乘夜回兵, … 今若遲延, 又值冬沍, 士馬凍餒, 悔無及矣.” (19회)
- 正商確間, 小校報奏道: “倭兵昨夜二更天專<全>數退遁, 不知去向了.” (19회)

- 大軍盡入泰安州, 傳<專\*>下軍令, … 出付泰安、濟南兩州爲需用. (19회)
- 濟南督撫江有古、太守程瑞麟<麟>、泰安州府尹寇繼俊. (19회)
- 元帥謙讓道: “總是天子盛德<威德>.” (19회)
- 及至捷書連奏, 倭兵屢敗, 天子嘉悅<喜悅>, 日望戎醜剿滅, 大兵凱還. (19회)
- 天子一鑑大喜, … 入於內殿, 奏太后; 楊少游剿戮倭兵, 迸逐渡海之由.<奏太后道: “楊少游剿戮倭兵, 迸逐渡海.”> (19회)
- 天子 … 便奏道: “娘娘之教誠然矣. 如此功績, 在古昔罕有. 當封王裂土<列土>, 以酬其功…” (19회)
- 天子承教道: “娘娘之教, 如合事禮<體\*>, 敢不奉承.” (19회)
- 太常道: “可不是. 總是閣<閣>下發露假學初之功.” (29회)
- 前有一度清溪, 白石磊落, 晴沙如鋪<鋪>素絹. (29회)
- 鄭太常、楊祭酒已與韓、趙兩翰林, 先來等候<等待>. (29회)
- 但見前山楓葉多勝了錦綉<繡>, 滿眼菊英, 或紅或黃, 白的紫的, 無色不有. (29회)
- 魏公道: “西湖、虎丘, 一國之名勝. … 今此園亦<始>爲始登…” (29회)
- 團圓棹子<棹子>擺在正中. (29회)
- 先按上幾碟菓子蔬膳, 輪流燙<盪>了酒, 斟<斟>上來, 勿論賓主少長, 隨意用過. (29회)
- 丞相想了一想, 道: “… 虛字便用通<道>用門的如此…” (29회)
- 丞相聽說, 又想了兩個, 一共湊成十二個, 說道: “既這麼著<着>, 一發編出個次序<次第>來.” (29회)
- 霜<風>前月下誰家種, 檻外籬邊何處秋. (29회/詩)
- 鄭太常素才敏好勝, 中心<心中>必欲多咏十二題菊… (29회)
- 莫認東籬閒採掇<綴>, 粘屏聊以慰重陽. (29회/詩)
- 短髮冷沾三徑<逕>露, 葛巾香染九雲霜. (29회/詩)

- 秋光叠叠<疊疊>復重重, 潛度偷移三逕中. (29회/詩)
- 珍重暗香踏碎處, 憑<憑>誰醉眼認朦朧. (29회/詩)
- 醒時幽怨同誰訴, 衰草寒烟無限<恨>情. (29회/詩)
- 丞相笑道：“…「對菊」爲第二, 意思清新, 立意<立論>典雅, 韓兄當爲魁了…” (29회)
- 丞相笑道：“今日快樂, 不可徒咏<詠>殘詩…” (29회)
- 登時衆多獵夫, 砲手一時領命, 金鼓動地, 鷹隼漫天, 炮的炮<砲的砲>, 射的射. (29회)
- 忽見一雙天鵝飛鳴雲霄間, 丞相道：“恨無弋言之加<駕>, 以助一時快趣來.” (29회)
- 那枝箭, 杳然直入雲霄, …一座莫不稱快, 左右一時喝彩<喝采>. (29회)
- 沈裊烟站起身, 道：“…白娘爲幻前身, 不可造次, 耽擱<耽擱>歲月, 今纔同來. 聞知丞相賞秋於此, 敢此前來請安.” (29회)
- 一座莫不嘆讚<讚嘆>. (29회)
- 其音哀怨清切, 殆乎<殆乎\*>水落三峽, 鴈號長天. (29회)
- 未知沈、白兩人<兩娘>如何進了魏公府? (29회)
- 章兒<童兒\*>八人, 俱是長成. (33회)
- 文藻日就成章, 聞一知十, 胸藏錦繡, 口吐璣玉<珠玉>, 俱成夙儒. (33회)
- 身貌又是飄逸, …已有萬夫不當之力<勇>, …喜動而不喜靜, 每或出外弄出事來. (33회)
- 自此適旭宗三兒<三人>亦隨章兒們入宮, 問寢於太后. (33회)
- 報喜的接連, 魏公府中熱鬧熱鬧<熱鬧\*>, 一府歡喜榮耀, 多多給他賞錢. (33회)
- 兩公主喜不自勝, 手撫諸子之背, 開言道：“…孩兒們各自努力<勞力>, 要副爺娘之願.” (33회)
- 楊章擢爲壯元, 楊適中了探花, 楊宗[擢]第五名, 第十三名楊璉<楊璉第十三名>, 第三十六名楊白<楊白第三十六名>, 第六十三名楊蘇<楊蘇

第六十三名>. (33회)

- 六人各各插花謝恩, 繼又金榜賜花, 合<各>赴瓊林宴. (33회)
- 文武官員奉旨陪後, 填街咽巷, … 爭觀喝彩<喝采>. (33회)
- 此時翰林兄弟姊妹<妹妹>俱未嫁娶. (33회)
- 共粧艷環珮之盛, 錦綉<錦繡>帳幔之儀, 帝家規範, 難以筆舌盡記. (33회)
- 近月<近日>亭在紫菱洲之傍, 李氏居之. (33회)
- 魏王一日登樓喝彩<喝采>, 兩公主、六娘子俱會. (33회)
- 蘭陽<蘭英\*>道: “丞相自然有好酒令, 我們如何會呢? ….” (33회)
- 丞相笑道: “不是謙<謙\*>我行不上來, 倒是<到是\*>笑話了.” (33회)
- 丞相道: “… 我有一個絕好的<之>笑話…” (33회)
- 公主諸人默默<嘿嘿>相視. (33회) (통용어)
- 說的末了, 大家灣<彎>腰噴飯都大笑. (33회)
- 英陽便想一想, 道: “有一姓王弟兄八個, 求人替起名字<名子\*>, 並求替起綽號. (33회)
- 所起名字, 還要形象, 不離本姓<本性\*>. (33회)
- 蘭陽道: “… 鄉下人房屋<旁屋\*>不多, 只得同坐一席…” (33회)
- “請問主人, 前引也不好, 後隨<隨後>也不好, 並行也不好, 究竟怎樣才好哩?” (33회)
- “一個人甚是貧窮, 一日遇見呂洞賓, 求其資助. … 洞賓隨又點石成金, 比<此\*>前資助甚厚…” (33회)
- 說的都大笑, 又明知白娘這笑話話中有機譏<機\*>他沈娘土音. (33회)
- 英陽笑道: “可不是白娘話悖而出, 逆<亦>悖而入者麼?” (33회)
- 白娘無奈, 因說道: “我原不會說笑話, 那裏又弄得一個公冶短<公矮冶>來? … 解子酒醒, 不見和尚, 不勝焦躁<焦燥>, 徘徊許久…” (33회)
- 狄娘道: “… 及至與客閒談<閒談>, 適值藥性發作, 汗流滿面 ….” (33회)
- “老漢從<終>不知詩, 不知此話從何而起?” (33회)

- “老夫<老丈>何必吝教? … 難道不是吟詩, 何必騙我?” (33회)
- 少年指堦<階>下鷄道: “騎他.” (33회)
- 英陽飲罷, 丞相笑道: “有一人, … 只見朋友手中掣著<看\*>一把扇子, 面前却跪著<着>一人, 在那裏央求. (33회)
- 此是萬曆年間新聞異事, 編成九雲樓<九雲記>三十五回. (35회)<sup>6)</sup>

[나] 添

- 少游應對道: “男兒(志)要的, … 但爺娘<孃>在上, ….” (4회)
- 少游愛玩不已, 一邊敬慕一邊悵悵, 不忍釋手, (而)如癡如狂<枉>, 以心問心, 把捉不定, 那裡睡得着. (4회)
- 於是少游深深四叩起來, … 當晚携了古琴<告琴>、玉簫, 帶了楊福, 一同下山, 取路(回\*)向咸寧去了. (4회)
- 元帥喝道: “如你井底蛙, 只知此等陣法, (亦)以為絕高麼!” (19회)
- 元帥應諾, 無放(冷)箭. (19회)
- 洛正躍了一騎馬, 一條鎗直前趨來, (是時)早有李尙好出馬, 直取迎敵. (19회)
- 各調官兵所獲, 戰馬留給被傷(者), 其餘盡數付給凱還之兵, 以為還朝上簿. (19회)
- 太常道: “惟命. 當約諸友會于樂(遊)園.” (29회)
- 章兒(們)一齊對道: “謹當服膺如戒呢.” (33회)
- 章兒(等)六人, 同了各省解元興興頭頭, 一時入場. (33회)
- 見了三場, … 真是翰墨如風雨, 筆畫(如)騰龍蛇, 呈于龍墀之下. (33회)
- 於是群芳院裏面, 綴錦樓、含芳閣近於莊蕙院, 英陽(以)為虞氏、葉氏(之)寢所. (33회)
- 繡霞樓在玉香院之前, 蘭陽(以)為鄭氏寢(之)所. (33회)
- 秦淑人道: “想來長人國人都喜喫酒, 所以買[些](空)罈子, 好去盛酒.

6) 이 예문은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35회에서 추가로 하나 더 뽑았다.

但那蠶繭, 除洗目(流)疾, 用處甚少, 他却買他怎麼? ….” (33회)

- “… (你)既能[通]獸語, 可知此犬說什麼? ….” (33회)
- 秦淑人道: “凡做詩, … 如信口亂言, 就是老翁所說那句話(屎\*)了.” (33회)

[다] 刪

- 庾夫人用手拉住[了]少游之手, 撫背道: … (4회)
- 楊公子呆了半餉, 正欲更走一步, 不但隔地墻頭, 並與自己[的]兩腿爭似釘住了地上, 一步也移不得了. (4회)
- 小二應[對]道: “這是秦御史宅子. … 同奶娘<仍娘>、幾箇老媽、丫鬟、僕夫們、管家在的. ….” (4회)
- 公子大驚, 莫知頭緒. 從門隙窺[視], 但見鈞戟如林, … (4회)
- 楊公子不知原由, … 遑不擇路, 雜在避亂人叢中, 望他山谷[之]中奔竄. (4회)
- 少游又將華陰秦小姐唱酬[醉]楊柳詩, 後為張修河所謀害, 全家被沒之事, 細述一遍. (4회)
- 歐道士見了不是頭, 急的要作起妖法, 口中念念有詞, 只有狂風忽起, 就地上生起黑雲, 暗暗罩住山頭, 昏慘[慘]迷合谷口. (19회)
- 李尚好道: “… 只為誘他接戰, 然後功可成[了]呢.” (19회)
- 秀突知是中計, … 便教四邊亂打[打]開舊路, … 正在危急. (19회)
- 吉乎飛見[了]兩將酣戰, 不分勝負<勝敗>, 又挺鎗<槍>出馬, 飛遶殺來. (19회)
- 歐道士又欲[作]藏身法躲避, 衆多刀斧手一時擁上, 只顧亂剝, 作為肉泥. (19회)
- 狄弼琦為左柱國, … 鄭雲鎬為太常卿, 韓浩吉、趙應度俱進[翰林]侍讀. (29회)
- 楊章擢為壯元, 楊適中了探花, 楊宗[擢]第五名, 第十三名楊璉<楊璉第十三名>, 第三十六名楊白<楊白第三十六名>, 第六十三名楊蘇<楊蘇

第六十三名>. (33회)

- 太后珍寶也似撫頂歡愛道：“你們是我之外孫. 秦淑人之兩兒、賈孺 [人\*]之一兒, 我視他與你們無異…” (33회)
- 次日, 天子登殿朝會, … 楊蘇除[拜]文華閣待詔從九品階. (33회)
- 魏王以群芳園裏諸樓閣, 各爲諸[新]婦嬌女之所有. (33회)
- 秦淑人道：“想來長人國人都喜喫酒, 所以買[些](空)罈子, 好去盛酒. 但那蠶繭, 除洗目(流)疾, 用處甚少, 他却買他怎麼? …” (33회)
- “… (你)既能[通]獸語, 可知此犬說什麼? …” (33회)

이상의 대조 고찰 결과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異	添	刪	비고
예문 수	138	16	18	
글자 및 어휘 수	164	19	18	
별표(*)	45	2	1	<구운기>에 나타난 수정 오류

검토 결과, <구운기>에는 순전히 ‘添’만 하거나 ‘刪’만 한 글자보다는 다른 표현으로 고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따라서 영남대본 <구운기>에 적혀 있는 “添刪”이라는 말에는 ‘改修’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異’에 해당하는 사례들의 경우, 아예 다른 표현으로 고친 것도 적지 않으나 <구운기> 편자의 취향에 따라 뜻은 같지만 다른 ‘통용자’로 바꾼 것들도 상당히 많다. 종합하면, <구운기>에 나타난 “첨산”의 주류적 방향은, ①중국식 표현을 조선식 표현으로, ②구어체를 문언체로 바꾸었다는 말로 요약된다. 중국어 조사나 허사를 삭제하거나 문언체로 바꾸는 경향, 뜻이 같은 다른 통용자로 바꾼 경우가 가장 많다. 물론 의도적으로 완전히 다른 글자로 바꾸어서 뜻 변화까지 동반되는 예도 상당히 많다. 간혹 서술체를 대화체로 바꾼 사례도 나타난다. 다른 각도에서 평론하면, 나름대로

‘문장의 의미가 더 분명해지도록’ 글자를 살짝 바꾸거나 첨기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그런데 <구운기>는 단순 오자는 차지하고, 어색하거나 불필요한 첨산, 첨산 오류 등 수정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들이 빈번히 나타난다. 가령 위에 뽑은 예문에서 별표(\*)한 글자들은 <구운기>에서의 수정 결과 오히려 오류가 생긴 경우로, 그러한 사례들이 도처에 나타난다. 물론 <구운루>의 오자가 <구운기>에서 바로 잡힌 경우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구운기>는 오류가 심한 편이다. 이것이 첨산본 <구운기>의 이본적 실상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구운기>에는 글자 또는 어휘 단위가 아닌 ‘문장단위’의 刪削이 가해진 곳이 현전 권책에서만도 일곱 군데나 확인된다. 그들 문장단위로 산삭된 예를 모두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9글자 산삭([ ]로 묶고 밑줄 친 부분이 <구운기>에서 산삭된 것임. 이하 같음.)

夫人道：“[···] 夢對常饈，取一肉餠，纔入口中，咬切兩分。內中有肉骨一塊，骨插牙齒，牙中血來，將骨肉濾血，[染遍了其餠，即合圓回方，纔覺了想來牙齒濾肉]中見骨，啖分合圓不成吞下。諒是凶多吉小[少]，是以納悶不妥了。” (<구운루> 4회, 25~26면)

② 21글자 산삭

萬世業輪起雙斧，一迷里斫殺倭兵。背後孟國輝，又引着衆多刀斧手，一如斫瓜般[殺倒倭兵三千，無一個遺漏殺盡。此時喊聲震地，吉乎]飛、歐道士只在谷後把守，不知明兵從那裏殺出來，大驚，不知所措，只欲前來迎敵。 (<구운루> 19회, 2면)

③ 21글자 산삭

太后道：“是何[難也?] 下詔召入宮中，有何不可?” 公主道：“是又使不

得鄭氏閨女也。巨子婦女，非戚聯，則不可無端召接。況閨中之女乎？雖有娘娘之命，必然稱病不朝，徒以非禮而害體面。鄭氏如因一命而入來，便是無德行之人。[...]" (<구운루> 20회, 6면)

④ 21글자 산사

丞相換了靴帽，恭敬領受。[...] 上面寫着：「大鹿十隻，獐子二十隻，[...] 碧糯五十斛，[白糯五十斛，杭粉五十斛，雜色梁穀五十斛]，下用常米五百擔，各色乾菜二十擔。」(<구운루> 30회, 5면)

⑤ 17글자 산사

英陽道：“我們又自都往往夢友館，[...] 倒也有趣。”大家又道：“好。”[...] 一個個上頭敦着一分爐瓶、一個攢盒。上面二榻四几[是英陽、蘭陽兩公主的。餘者都是一椅一几]，攢盒式樣亦隨几之式樣。(<구운루> 31회, 19면)

⑥ 22글자 산사

此時魏公府，帳幔漫天，車馬如雲。滿朝賀賓，奉詔盈門。新恩[六人，紅袍彩花，次第上堂，羅拜祖考祖姑，入拜爺娘四拜。]少卿夫妻還以盛滿爲懼，各勉諸孫。楊章等再拜受命，恭儉敬慎爲平生受用之資，人又莫不敬他。(<구운루> 33회, 8면)

⑦ 73글자 산사 및 개수

府中已過了三天，去請欽天監[陰陽司來擇日，擇准停靈七七四十九日。發引日近，祭酒同翰林，各坐輜車，帶了陰陽生，親自往鐵檻寺來踏看寄靈之所。又一一囑咐住持色空，好生預備新鮮陳設，多請名僧，以備接靈使]用。(<구운루> 35회, 8면)

☞ 위의 밑줄 친 부분(73자)은 <구운기>에서 산사되면서 다음 밑줄 친 부분(50자)과 같이 改修되었다. 府中已過了三天，去請欽天監[涓吉人來，

按了法歷, 推譯出殯的日子. 涓吉人道: “這四月十八日, 是上吉日了.” 於是更定幹事的兩人, 各處經紀的事, 專聽虞氏并用.

이상, ‘문장단위’로는 총 7군데에서 무작위 산삭이 이루어졌다. 전후 문맥이 손상되지 않는 정도에서 유의해서 산삭한 것이 아니라 무작정 뺀 경향이 두드러진다.<sup>7)</sup> 이는 문장단위 산삭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리고 일실된 나머지 <구운루> 네 권까지 모두 비교할 경우 <구운기>에서 이처럼 산삭된 곳은 10여 군데 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중국의 몇몇 연구자들은 영남대본 <구운기>를 두고 “도처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중국인撰이 아니라고 강변하기도 했으나, 사실 그것은 <구운기>에 와서 달라진 양태일 뿐 원작 <구운루>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문장단위’의 ‘添’은 없는가? 엄밀히 말하면 없다. 다만, 위의 7번과 같이 부분적인 산삭 및 개수를 가한 곳이 한 군데 나타나는 정도이다. 이는 <구운기>가, 無名子が 밝힌 그대로 ‘添刪本’이면서도 ‘添’보다는 ‘刪’에 초점을 맞춘 이본임을 말해준다. 전반적으로 <구운기>는, 조선교감필사본 <구운루>를 저본으로 도처에 약간씩 개수를 가한 가운데 ‘刪’으로 기울어 있는 이본이다.

#### 4. <구운기>의 문헌적 성격

無名子が 9권9책으로 엮은 <구운기>는 그 全稱이 “신증재자구운기”

7) 물론 그렇다 해서, 저와 같은 산삭이 모두 무작위로 가해진 것이라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다. <구운기> 편자의 단순 실수에 의한 누락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가 하면 7번 예문의 경우 새롭게 改修가 이루어졌으므로 작가의식이 개입된 결과로 적극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불교적 색채를 지우려 한 의도가 역력해 보인다.

이다.<sup>8)</sup> 10권10책본 <신증구운루>(조선필사본)를 저본으로 새롭게 편차하는 가운데<sup>9)</sup> 그 제목을 의도적으로 바꾼 것이다. 그런데 <구운기>를 살펴보면 그 제목이 “新增才子九雲記”와 “新增九雲記” 두 가지로 나타난다. 제8책 권수제가 “新增九雲記卷八”로 적혀 있는가 하면, 제1회 본문 도입부에 보이는 “지금 <新增九雲記>와 같이 일시에 부귀를 이루고 만세에 기이함을 전하는 것은 보기 어렵다.”<sup>10)</sup>는 문장에도 단시 “신증구운기”라고 썼다. 다른 권책의 권수제는 모두 “신증재자구운기”로 되어 있으므로, 이 제목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才子”를 넣지 않고 “신증구운기”라고도 했었음을 알 수 있다. 저본인 <신증구운루>라는 서명을 비롯해 <신증구운기>와 <신증재자구운기> 사이에서 결국 그 최종 제목이 <신증재자구운기>로 새롭게 정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구운기>는 그 목차가 아직 완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 우선 <구운기> 제1책 책머리에 들어 있는 <總綱>과 본문 매 회의 장회명을 비교해 보자.

회차	<구운기> 본문 장회명	<구운기> 總綱 회목
1	西王母瑤池宴蟠桃 釋性眞石橋戲明珠	西王母瑤池宴蟠桃 釋性眞石橋戲明珠
2	咸寧縣性眞投胎 衆隣舍[潘替]說命	咸寧縣性眞投胎 衆隣舍[潘聲]說命
3	百花姑合席說功過 八仙娥同時降塵凡	百花姑合席說功過 八仙娥同時降塵凡
4	華陰閨女唱和楊柳詩 紫虛眞人傳授陰符經	華陰閨女唱和楊柳詩 紫虛眞人傳授陰符經
5	楊解元獨點花魁 桂蟾月自擬月姥	楊解元獨點花魁 桂蟾月自擬月姥
6	假女冠[相府]彈琴韻 巧春娘粧[閨諭]弓影	假女冠[鄭府]彈琴韻 巧春娘粧[閨諭]弓影

8) 표제는 “九雲記”이나, 오리지널 제목인 권수제는 “新增才子九雲記”이다.

9) <구운루>와 <구운기>는 둘 다 35회본이고 그 장회명도 동일하다. 그 분권 방식에서 차이가 나는데, <구운기>는 각권에 더 많은 회차를 구성함으로써 권책 수가 한 책 줄었다. 앞서 든 필자의 선행논문에서 권책별 회차 구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비교했다.

10) 難得如今 <新增九雲記>, 萃一時之豪貴, 傳萬世之奇異.

7	說[婚媾]老司徒起怒 通關節太學士發誓	說[婚媾]老司徒起怒 通關節太學士發誓
8	楊少游金榜擢壯元 鄭司徒花園迎嬌客	楊少游金榜擢壯元 鄭司徒花園迎嬌客
9	[鄭小姐]書齋賭碁 [賈春娘][繡]閨詠鞋	[鄭瓊貝]書齋賭碁 [賈春雲][綉]閨詠鞋
10	賈春雲爲仙爲鬼 狄鶯鴻乍陰乍陽	賈春雲爲仙爲鬼 狄鶯鴻乍陰乍陽
11	金鸞直廬學士吹簫 蓬萊別殿宮娥請詩	金鸞直廬學士吹簫 蓬萊別殿宮娥請詩
12	秦宮娥掩泣隨黃門 楊學士陳情[叫]青瑣	秦宮娥掩泣隨黃門 楊學士陳情[叩]青瑣
13	鄭司徒承[旨]賴婚 楊學士再疏下獄	鄭司徒承[詔]賴婚 楊學士再疏下獄
14	日本國潛師犯青州 楊元帥鍊兵出濟南	日本國潛師犯青州 楊元帥鍊兵出濟南
15	楊元帥擺開鷓鴣陣 倭總兵敗走泰安州	楊元帥擺開鷓鴣陣 倭總兵敗走泰安州
16	沈裊烟[舍劍]訴真情 吉乎飛出兵說奇計	沈裊烟[捨劍]訴真情 吉乎飛出兵說奇計
17	廖先鋒[誤陷]盤蛇谷 楊元帥做夢白龍潭	廖先鋒[陷軍]盤蛇谷 楊元帥做夢白龍潭
18	白龍潭元帥破陰兵 洞庭湖龍王宴宮樂	白龍潭元帥破陰兵 洞庭湖龍王宴宮樂
19	平秀突捲兵渡海 楊元帥奏凱還朝	平秀突捲兵渡海 楊元帥奏凱還朝
20	蘭陽主微服[拜]佛 鄭小姐承[旨]入宮	蘭陽主微服[訪]佛 鄭小姐承[詔]入宮
21	鄭小姐賜爵英陽主 賈春娘續[詠]喜鵲詩	鄭小姐賜爵英陽主 賈春娘續[吟]喜鵲詩
22	賞三軍元帥辭封爵 歸花園春娘傳假音	賞三軍元帥辭封爵 歸花園春娘傳假音
23	兩公主一席[合香] 雙親堂聯車[入京]	兩公主一席[合香盃] 雙親堂聯車[入京第]
24	英陽主諱名貶鄭氏 魏國公假病說鬼話	英陽主諱名貶鄭氏 魏國公假病說鬼話
25	西園新第兩公主出閣 東樓壽席二佳姬入門	西園新第兩公主出閣 東樓壽席二佳姬入門
26	舉賢良楊少璉登第 求直言[鄭雲鎬]陳疏	舉賢良楊少璉登第 求直言[鄭雲鍊]陳疏
27	胡伯遠按獄假犯人 嚴學初臨刑招吏部	胡伯遠按獄假犯人 嚴學初臨刑招吏部
28	悖逆子捨父喪命 奸黨賊籍產就戮	悖逆子捨父喪命 奸黨賊籍產就戮
29	[樂遊園賞秋詠菊詩 打圍場看劍聽寶瑟]	[樂遊園賦詩射鵬 打圍場撫劍聽瑟]
30	莊衛院丞相夢八仙 凝暉閣英陽誕雙男	莊衛院丞相夢八仙 凝暉閣英陽誕雙男
31	英陽主[細評]柏葉茶 白凌波雅宜牙牌令	英陽主[評說]柏葉茶 白凌波雅宜牙牌令
32	蘭陽主約詠美人詩 桂蟾月闌趣骰角令	蘭陽主約詠美人詩 桂蟾月闌趣骰角令
33	三場試六子聯金榜 九雲樓八美說笑話	三場試六子聯金榜 九雲樓八美說笑話
34	庾太君[大宴]群芳[園] 兩公主[文誓]白衣佛	庾太君[開宴]群芳[院] 兩公主[誓文]白衣佛
35	楊丞相陳疏乞養 眞上人返本還原	楊丞相陳疏乞養 眞上人返本還原

사실 <구운기>를 면밀히 살펴보면 이렇듯 매회 본문의 장희명이 제1

책에 <총강>이라는 이름으로 편차된 전체목차와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다. 위에서 [ ]로 묶고 진하게 표시한 글자는 서로 차이가 나는 것들이다. 2회와 26회 회목에 보이는 ‘潘聲’과 ‘鄭雲鍊’의 경우 단순 誤記에 불과하나, 나머지는 의도적으로 고치고자 했음이 뚜렷하다. 같은 책 내에서는 전체목차와 본문의 각 회목이 결코 다를 수 없는 것이거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구운기>를 엮는 과정에서 分卷을 저본과 달리하고 총목을 일부 다르게 수정하긴 했으나, 미처 그 본문의 장회명까지는 수정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위의 <구운기> ‘본문 장회명’과 ‘<총강> 회목’ 중 <구운루>와 일치하는 것은 당연히 전자이다. 현전 <구운루> 殘卷에는 4~6회, 19~35회가 수록돼 있는데, 각 장회명을 비교해 보면 <구운기> ‘본문’의 그것들과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구운기>에 보이는 總目은 <구운기> 편자가 일부 수정을 시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응당 <구운루>에도 책머리에 총목이 있었을 터인데, 그것을 똑같이 베끼지 않고 우선 일부 고쳐서 정리한 다음, 본문을 필사 및 添刪하면서 그 본문의 각 장회명에는 미처 손을 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전 영남대본 <구운기>가 일반적인 전사본이 아니라 ‘원고본’임을 말해주는 유력한 근거이기도 하다. 심지어 제9책 권수제를 보면 ‘終’자가 잘못 들어가 “新增才子九雲記卷九終”이라고 ‘권말제’로나 어울리게 적혀 있기도 한데, 이 또한 <구운기>가 완전한 定稿本은 아님을 보여주는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그 본문에서도 원고본으로서의 수정 및 補記 흔적들이 종종 나타남도 물론이다. 때문에 현존 <구운기>는 편자의 원고본이라는 사실도 아울러 밝혀 둔다. 다만, 작자가 직접 집필하여 탈고한 ‘창작텍스트’로서의 원고본이라면 응당 善本이겠지만, <구운기>의 경우 기존의 필사본 <구운루>를 저본으로 전사하는 가운데 재편집 및 添刪을

가한 이본이기 때문에 특별히 원고본으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구운기>가 상당히 많은 오류를 안고 있는 이유도 보다 정교한 최종 교정을 거치지 않은 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5. 맺음말

<구운루>는 한국의 고전명편 <구운몽>이 중국으로 전래되어 ‘중국판 <구운몽>’으로 재탄생한 작품이다. 의미심장하게도 그것은, 또다시 국내로 수입되어 조선인 나림대로의 연구와 다듬기, 또는 침산이 가해진 조선 교감필사본 <구운루>와 <구운기>라는 약간 다른 두 종의 이본이 태어났다. 현전 필사본 <구운루>는 中國刻本을 저본으로 필사 교감한 책이므로 원작 계열의 텍스트이되 약간의 수정이 가해진 이본이고, 영남대본 <구운기>는 그 조선필사본을 직계승하는 가운데 2차 개수가 이루어진 이본이다. <구운루> 세 이본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된다. 그런 가운데 <구운기>는 조선필사본 <구운루>를 그대로 계승하지 않고 적잖은 변이가 일어났으므로 결과적으로 원작인 중국 刊本과의 거리는 더욱 멀어진 셈이 되고 말았다.

과연 <구운기>는 그동안 중국의 일부 연구자들로부터 오류가 심한 자료, 어색한 漢語 투성이 소설이라는 혹평을 듣기도 했다. 동시에 텍스트가 지닌 그러한 문제점들은, 절대 중국인이 지은 작품이 아님을 보여주는 유력한 근거로 지적되었다. 물론 <구운기>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자료라는 지적은 기본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만일 <구운기>가 다름 아닌 ‘조선인 침산본’이라는 사실을 적극 고려했다라면, 그러한 오류들을 근거로 중국소설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지는 않았을 지도 모른다. <구운

기>에는 어색한 중국어 표현도 많지만, 사실 조선인이 지은 우리나라 소설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했다. 양쪽을 다 알지 못하고서 한쪽만을 갖고 판단해서 생긴 착오였다.

이제 중국소설 원작계열의 <구운루>를 또다시 개수한 것이 <구운기>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원작 및 국적 문제를 둘러싼 쟁점은 자연스럽게 해결된 셈이다. 현재 未見인 중국간본 원작 <구운루>는 당초 중국인이 漢語로 지은 것이므로 굳이 국적을 따지자면 중국소설이다. 조선교감본 <구운루>와 첩산본 <구운기>는 국적을 판별하기가 약간은 애매한 점도 있겠으나, 이 또한 마땅히 중국소설로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글번역본’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 원작이 중국본인 데다 중국어로 쓴 작품이므로 당연히 중국소설이다. 교감 및 첩산은 국적문제와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

한편, 이 글에서는 <구운루>와 <구운기>에 나타난 분권 방식의 차이를 살피지 않았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나, 선행논문에서 자세히 밝혔으므로 재론하지 않았다. 그리고 본고는 필자가 진행한 선행연구의 연속선상에서 집필한 것이므로 일부 예문과 논의는 불가피하게 중복되었음도 밝혀둔다. 덧붙여, <구운루>와 <구운기>는 일부 똑같은 오류들을 공유하고 있기도 하나,<sup>11)</sup> 그러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굳이 살피지 않았다. <구운루>와 <구운기>의 모든 이본적 특징과 차이는 조만간 펴낼 『구운루校습 연구』에서 자세히 밝혔다. 나머지는 이 책으로 미룬다.

11) 몇몇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外此[此外], … 綠香亭等之爲繡蕙諸姑娘之繡房, 不可殫紀. ②城裏之耗[耗子]到了下面, 只聞酒香撲鼻… ③於是桂娘[狄娘]賞飲一杯. ④狄娘[沈娘]道: “我是遠方人, 如欲長編套話, 每多土音. 請列位也莫嘲笑罷.” (이상 33회) // <구운루>와 <구운기>에 공히 오류를 지닌 경우들로, [ ]으로 묶은 것은 바로 짝은 글자이다.

## 참고문헌

## 1. 자료

- 『新增九雲樓』, 필사본, 6권6책 殘本(총 10권10책), 인천시립미추홀도서관 소장.  
 『新增才子九雲記』, 필사본, 9권9책, 영남대 소장, 윤영옥 역, 『구운기』, 영남대 출판부 영인, 2001.  
 江琪 校點, 『九雲記』, 江蘇古籍出版社, 1994.  
 『紅風傳·新增才子九雲記』, 『韓國藏中國稀見珍本小說』(전4권) 중 제3권,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7.  
 『新增才子九雲記 등』, 『中國古代孤本小說集』(전4권) 중 제3권, 中國文史出版社, 1998.

## 2. 논문

- 윤영옥, 「<구운기> 攷」, 한국어문학회 편 『조선후기의 언어와 문학』, 형설출판사, 1978, 113~132면.  
 육재용, 「<구운기> 연구 -<구운몽>과의 대비 및 중국소설의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86, 1~124면.  
 오춘택, 「한국고소설비평사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1, 179~180면.  
 육재용, 「<구운기>에 미친 <경화연>의 영향」, 『영남어문학』 21, 영남어문학회, 1992, 219~245면.  
 장효현, 「<구운몽>의 주제와 그 수용사에 대한 연구」, 『김만중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3, 127~130면.  
 정규복, 「九雲夢與九雲記之比較研究」, 『중국학논총』 6, 고려대 중국학연구회, 1992, 1~5면.  
 崔溶澈, 「紅樓夢在韓國的影響及研究」, 鍾彩鈞 主編, 『中國文哲研究的回顧與展望論文集』, 台北: 中央研究院中國文哲研究所, 1992, 177~206면.  
 최용철, 「<홍루몽>의 한국 전래와 영향 연구」, 『중국어문논총』 4, 고려대 중국어문연구회, 1992, 195~206면.  
 최용철, 「<구운기>에 나타난 「홍루몽」의 영향 연구」, 『중국어문논총』 5, 고려대 중국어문연구회, 1992, 43~65면.  
 崔溶澈, 「<九雲記>의 作者及其與<紅樓夢>的關係」, 『紅樓夢學刊』(2期), 1993, 277~303면.

- 육재용, 「<구운기>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영남어문학』 28, 영남어문학회, 1995, 279~308면.
- 崔溶澈, 「九雲夢幻九雲樓-韓中小說史上共受注目的<九雲記>成書過程」, 『文學絲路』(中華文化與世界漢文學論文集), 台北:世界華文作家協會, 1998, 92~104면.
- 양승민, 「<新增九雲樓>의 발견과 그 존재 의미」, 『한국한문학회연구』 48, 한국한문학회, 2011.
- (이상 한국, 연대순 / 이하 중국, 연대순)
- 劉世德, 「論<九雲記>」, 江琪 校點, 『九雲記』附錄, 江蘇古籍出版社, 1994, 318~351면.
- 劉世德, 「國籍問題之爭: <九雲記>是中國小說, 還是朝鮮小說?」, 『延邊大學學報』(1期), 1995, 42~44면.
- 陳慶浩, 「<九雲記>之研究及其作者問題」, 『文學絲路』(中華文化與世界漢文學論文集), 台北:世界華文作家協會, 1998, 75~91면.
- 李宜樺, 「<平山冷燕>之書寫續衍與轉化研究」, 台南:國立成功大學 碩士論文, 1998, 272~277면.
- 趙冬梅, 關於<九雲記>作者問題及其與才子佳人小說」, 『중국학논총』 12, 고려대 중국학연구소, 1999, 71~85면.
- 宋謀場, 「<九雲記>不可能是中國小說」, 『晉東南師專學報』(1期), 1999, 20~22면.
- 趙冬梅, 「<九雲記>與才子佳人小說」, 國立中正大學中文系 語言與文學研究中心 主編, 『外遇中國』(中國域外漢文小說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台北:台灣學生書局, 2001, 247~276면.
- 趙冬梅, 「談才子佳人小說對<玉麟夢>等朝鮮漢文小說的影響」, 『중국소설논총』 16, 한국중국소설학회, 2002, 147~166면.
- 艾麗輝, 「論<九雲記>對<紅樓夢>的抄襲」, 『黔東南民族師專學報』(1期), 2002, 40~45면.
- 艾麗輝, 「論<九雲記>對<九雲夢>的改寫」, 『瀋陽師範學院學報』(1期), 2002, 39~41면.
- 艾麗輝, 「<九雲記>國籍問題新探」, 『東疆學刊』(3期), 2004, 24~30면.
- 趙冬梅, 「再談<九雲記>的作者問題」, 世界漢學大會 會議論文, 中國人民大學 漢語國際推廣研究所 漢學研究中心, 2009.

## ABSTRACT

A Study on the Distance between *Guwoonru* and *Guwoongi*

Yang, Seung-Min

The investigator recently conducted a study after newly discovering six volumes and books of manuscript of ten *Shinjeungguwoonru*(新增九雲樓). As its follow-up study, this study set out to compare and examine correlations between *Guwoongi*(九雲記), whose nine volumes are housed at Yeungnam University, and *Guwoonru*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and status of the former as a different version.

First, it was examined how the revised letters in the Joseon revised manuscript of *Guwoonru* were inherited in *Guwoongi*. As a result, it was once again confirmed that *Guwoongi* made a few revisions to *Guwoonru* in the direct inheritance process. Then, the 'additions and omissions' in *Guwoongi* were examined in three types of 'changing(異), addition(添), and omission(刪)'. The results show that the cases of replacing one with a different expression absolutely outnumbered the cases of merely adding or omitting. *Guwoongi* is a version with many problems of awkward or unnecessary additions or omissions and revision errors in addition to reckless omissions of 'sentences' here and there.

Those were the changes made in the creation process of *Guwoongi*, which is separate from the original Chinese work. Directly inheriting the Joseon manuscript *Guwoonru*, it made many revisions and thus became more distant from the original Chinese block book.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the Yeungnam University version of *Guwoongi* is not a regular transcript but the compiler's manuscript.

**Key Words** *Shinjeungguwoonru*(新增九雲樓), *Guwoongi*(九雲記), revised edition, addition and omission, revision, manuscript, *Mumyeongja*(無名子).

논문투고일	: 2011. 10. 15
심사완료일	: 2011. 11. 30
게재확정일	: 2011. 12. 05